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군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사실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꾸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A 세상을 살면서 남을 미워하는 일은 다반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별심으로 인해 미움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일체동근(一切同根) 삼라만상의 존재는 모두 연결돼 있어 상호의 존적 존재입니다.

이런 분별심에서 오는 미움을 자비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정진을 계속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다스려 집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불자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다고 해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어지간한 정성 가지고는 행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정법이다, 무속이다 편 갈라서 걱정하기보다는 새벽마다 올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과 가정을 위해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더욱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 며칠 전 친구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들 둘을 둔 친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심한 감기몸살이라고 하더니, 결국 폐암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병을 알고도 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하나요
분별심에서 오는 미움은 자비심으로 이겨내세요

이 참는 것만으로는 불가하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어머니가 절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으나 집안의 벽에 부처님 그림을 붙여놓고 향과 초를 피우면서 새벽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머니의 이런 절하는 모습이 TV에서 보았던 무덤집 같이 상당히 거북합니다. 주위 분들도 집안에 그런 그림을 합부로 들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더욱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지금까지는 뭐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주위에서도 어머니를 무속신앙에 빠진 것으로 걱정을 해어해야할지 고민입니다.

A 어머니께서 벽에 부처님 그림을 붙여놓고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절에서는 부처님을 모신다거나 탱화를 모신다거나 할 때는 점안식이라는 절차를 거쳐 모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 닿는 곳 처처(장소가 다 도량(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부득이 절에 가지 못하는 불자 분들은 집에서 기도드릴 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을 올려놓고 향이나 초를 피워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향과 초를 피우는 건 자신의 온갖 잡념과 망상을 털어버리고 부처님께 깨끗한

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나니까 이젠 제가 죽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제 친구는 혼자서 죽음의 세계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울까도 생각해 보게 돼요.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저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걱정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는 게 싫습니다. 주변엔 아무 것도 없고 저 혼자 철쭉 같은 어둠속에 던져져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A 가까운 친구가 먼 길을 떠났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나 봅니다. 어쩌면 친구가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워 거라 염려되는 마음에 생전처럼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니 어둠 속에서 나를 밝히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생과 사를 넘나 들것 같은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 충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0년 8월 10일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간 총리는 담화문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에 넘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언급하기까지에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의 활약이 컸다.

혜문 스님은 9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문화재제자리찾기의 ‘조선왕실의궤환수 경과보고회’에서 4년 여의 조선왕실의궤 반환 운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김부겸 국회 문광위 의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명성왕후 국장을 기리는 다큐 영화 ‘잃어버린 제국(감독 김아자)’ 등을 시청했다.

환수위는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탈당한 일본 왕실 도서관 궁내청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가 4년 여의 환수운동 끝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조선왕실 의궤 반환은 온 국민의 승리”라며 “의궤가 잘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모두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행사에서 스님의 경과보고와 저서 <의궤, 잃어버린 조선의 보물>을 통해 혜문 스님의 환수운동 과정과 소감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국권 침탈 100주년이 되는 올해 광복절에는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었지만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왕실에서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일본 총리의 입에서 일본이 조선왕실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포기한 문화재를 민간이 싸워서 되찾았습니다. 나는 이번 조선왕실의궤 환수가 우리나라 승병·의병운동의 전통에 한 줄을 더 남긴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금강경>에 ‘한치 본처(還至本處)’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중생에게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나는 문화재 환수 운동이 불교사상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며 또 다른 수행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혜문 스님(왼쪽)이 일본을 방문해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당위성을 담은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스님 4년여 반환운동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모두 반환돼야 마무리

조선왕실의궤환수운동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혜문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

일본 교토서 유학중이던 2004년 8월 고서점에서 일본인 학자가 쓴 <청구사초(靑丘史草)>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고 <조선왕조실록>이 도쿄대에 소장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즉시 실록을 열람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되찾기 위해 2006년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반환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 한일협정 당시 반환받은 1432점의 문화재 목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환수 목록 중에는 짚신, 막도장, 우재부모자 같은 것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허접한 것들을 한국에 돌려주면서 “문화재 반환이 종결됐다”고 한 것에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력 끝에 결국 도쿄대는 서울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조선왕조실록>을 돌려줬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오른쪽과 왼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록과 의궤가 모두 반환돼야만 조선왕실 기록물 반환이 완전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눈앞에 둔 지금을



‘유형의 물건’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 자존심’을 되찾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여의 반환과정을 지내오며 나는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록과 의궤가 모두 반환돼야만 조선왕실 기록물 반환이 완전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눈앞에 둔 지금을

이 운동을 진행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고...
환지분처.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동섭 기자 · 사진제공=중앙신도회

적중도 최고 효과성 최대 효사활인천역 집2010완결보정판 구입교환및육임할 용서학습서구입안내

1. CD프로그램

교환대상	효사활인천역집 I, II, III, 완결판 소지자
교환가격	효사활인천역집 I 교환 15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II 교환 12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III 교환 80만원 효사활인천역집 완결판 교환 50만원
신규구입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 보정판 500만원
기능	월터치·매일 메시지별 자동화면·동일 시간내 다수방문자 구분식별·상당 메모리·자료출력 등등
장착목록	(아래 제 3차항조)

2. 미리보고 먼저 알게되는 자동화면의 우선항목들
- 시보(時報) : 왜 왔는가?
 - 내정(來情) : 어떤 정황인가?
 - 득지(得知) : 무슨 비밀사정이 있는가?
 - 아타(俄他) : 저지른 일인가, 일어날 것인가?
 - 미기(未既) : 이미 일어났는가, 일어날 것인가?
 - 귀신(鬼神) : 어떻게 죽은·누구의 귀신이 침범했는가?
 - 병귀(病鬼) : 무슨 귀신침범으로 병이 났는가?
 - 사송(邪祟) : 신변·가택 어디에 무슨 부정이 들었는가?
 - 산소(山所) : 누구 묘지, 무슨 좌향·물형, 어떤 경관인가?
 - ◆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소 시킬수 있는가?
 - ◆ 비방·부적·굿·천도재·불제 등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며칠 후 언제 해야만 좋을까?
 - 이외 24개항목의 길흉성부를 결정지어 놓았고, 50여 인사(人事)문제도 미리보고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 했습니다.

3. 육임 활용서 (위 1항 CD프로그램에 장착 됨)
- ① 효사육임산책 2010최신판(후대용) 1·6·60권 250만원
 - ② 효사육임복변집 2010 보정판(좌정용) 1·6·60권 250만원
 - ③ 육임대계전서 2010개편본(후대용) 1·6·60권 250만원
 - ④ 육임풍수 2010개편본(후대용) 1·6·60권 70만원
 - ⑤ 육임년신수비결 2010개편본(좌정용) 1·6·60권 35만원
 - ⑥ 육임래정비법 2010개편본(후대용·좌정용) 1·6·60권 50만원
 - ⑦ 도사에게 물어봐 2010 증보판 육임길흉성부상당지침록(후대용) 10만원
 - ⑧ 육임사주감정법 2010개편본(좌정용) 20만원
 - ⑨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좌정용) 12만원
 - ⑩ 효사속 사주(CD전용) ⑪ 성명학(CD전용) ⑫ 매화역수(CD전용)
 - ⑬ 월영도(CD전용) ⑭ 부적보감(CD전용) ⑮ 통의보감(CD전용)

4. 육임 학습서
① 효사육임강론 2010개편 증보 제 8판본 上권 종합학습편 1800쪽
② 下권 활용편 1800쪽 사과 삼진표·천지반표·과·격 체출법 및 각 상의·국수 해설·24개 항목별 단정 및 대별 교제 적시함

구입 승인 교환 안내 011-9795-1773 담당 양광표 / 계좌번호 : 농협 356-0340-6628-13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 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다.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게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끌고다니우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다.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